

전국의협 18일 전면 휴진... 전주시 총력 대응

전공의 의료 파업 4개월 지속... 전주시, 당일 진료명령 발령·비상 진료 상황실 등 운영

지난 2월 시작된 의료 파업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현재 전주시 관할 종합병원은 전북 대병원, 예수병원 등 5개이고 총 618개 병·의원에 의사인력은 1,820명이다. 전주시는 전국의협이 선언한 10일, 집단휴진일인 18일에는 당일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시 3일 전(6.13)까지

신고토록 휴진신고 명령을 발할 예정이다 밝혔다. 이대로 전면 휴진이 진행될 경우 전주시는 18일 업무개시 명령을 오전 9시에 발령하고 휴진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방문과 채증(확인서 부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 안전정책과 공무원도 함께 현장점검에 동행한다. 동시에 개인의 전문인력 편성하고 의료기관 휴진 현황을 수시 파악한다.

병원 88개소에 보건 행정과 등 직원 10명을, 의원 535개소에 78명의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상 진료 상황실을 평일 오후 10시,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18일은 보건소 2개소, 보건 진료소 3개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진료하고 약사회와 협조하여 심약국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하여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병원과 의원 진료현황 파악, 의료기관 운영상

함 점검 등에 노력을 쏟고있다. 한편 시 보건관계자는 전북대 등 종합병원의 응급실 등은 약 50%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 상황실에 접수된 심각한 응급민원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의협의 전면 휴진 선언으로 전주시도 의료 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추세로 의료대란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어 보인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1일 전주시 교동에 위치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및 대성동 간재선비문화수원원 조성 계획 부지를 찾아 사업 설명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현장행정 나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 의원)가 11일 전주시 교동에 위치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및 대성동 간재선비문화수원원 조성 계획 부지를 찾아 사업 설명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이번 현장 활동은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에 따른 것으로, 정성길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및 간재선비문화수원원 예정 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추진 사항 및 금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정성길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한 공유재산 심사가 신중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는 현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신뢰받는 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발전 위한 고향사랑기부

이용제 천일제지 대표, 500만원 쾌척

전주시 명예시민인 이용제 천일제지(주) 대표는 11일 전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천일제지는 올해 37년 차를 맞이한 전주 향토기업으로, 우수한 자관인재를 개발해 국내 섬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채용을 통해 전주시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천일제지를 이끌어온 이용제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전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이용제 대표는 이날 "좋은 기회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소중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되며, 고향사



전주시 명예시민인 이용제 천일제지(주) 대표는 11일 전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랑e을 누리집(www.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 서 참여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7월부터 건지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보행 약자 등 모든 시민에게 산림휴양공간 제공

전주시민들의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인 건지산에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올해 산림청 녹색자금 8억 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해 전북 대학병원 뒤편에서 덕진체력공원까지 1450m 구간의 전북대학교 학술림을 활용해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 휴양 체험 기회가 부족한 보행약자에게 산림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북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해당 토지 사용을 승낙하면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해당 구간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운영을 고려해 최대 경사 6도, 폭 1.8m로 자연 친화적인 황토 포장이나 목재 데크 등을 도입해 높낮이 없는 보행환경을 제공기로 했다. 또한 일정 구간마다 접사 안내 손잡이와 숲 체험 안내판을 설치해 장애인에게 편안한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장애 나눔길을 찾는 이용자가 스스로 체력을 조절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일정 구간마다 숲과 어우러진 쉼터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생활 속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황토길과 황토 체험장, 세족장 등을 설치해 다양한 산림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보행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에서 작품전시와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기로 했다. 시는 건지산 일대에 장애물이 없는 녹색 들레길이 조성되면 교통약자의 접근이 편리해지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환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건지산 무장애길은 단순한 숲길이 아닌 모든 시민이 힐링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가 화재취약계층에 맞춤형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화재취약계층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가 화재취약계층에 맞춤형 소방시설을 설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청각 및 시각 장애인 등 화재취약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 인지 및 대피를 돕기위한 '시각경보형 감지기' 및 '촉지형 파난 유도선'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시각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소리(경

보, 음성)와 불빛이 동시에 작동하여 화재를 알리고, 촉지형 파난유도선은 비상구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돕는 방식이다. 박경수 완산소방서장은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소방시설 보급으로 피난약자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